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2000-2015)

2016년 4월

전략시장연구실 박진우 수석연구원

CONTENTS

[요 약]	i
I. 연구 배경 및 목적	01
II. 중국의 무역구조 및 특징	02
III.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특징	08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1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전략시장연구실 박 진 우 수석연구원 (☎02-6000-5188, jinwoo84@kita.net)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고,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대외무역은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무역은 2000년대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 중국의 수입은 전년 대비 18.4% 감소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對중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15년 중국의 수입구조는 중간재가 53.4%를 차지하며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반제품(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등)의 중국 현지생산 확대로 수입산을 대체함에 따라 2000년 63.9%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2%로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중간재 수입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2005~2015년 간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증가세(2015년 기준 15.8%)로 경쟁국과 비교해 우위에 있으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감소세(2015년 기준 4.8%)를 보이며 다른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을 무역형태별·가공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5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가공수출의 비중이 50.0%로 일본 34.1%, 미국 17.1%에 비해 크게 높다. 둘째, 가공수출에서 유상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상수출 비중은 줄고 있는데, 이는 한·중 가공무역 관계가 고부가가치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중간재 수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중간재에서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은 중국과의 투자 연계성에 따라 증가하고, 반제품 수출 비중은 현지대체율 확대로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경쟁국들의 점유율은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5.9%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소비재에 대한 수출 확대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감 요인을 CMS(불변시장점유율)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쟁력 요인과 수요 요인에 의해 對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구성 요인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혁신 정책 드라이브로 과거 우리가 중국과 유지했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관계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對중국 수출에 있어서 아직도 가공무역과 중간재 수출에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서비스 중심의 정책전환과 무역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 관점에서 對중국 수출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제품 고급화 전략,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온라인을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수출의 기회 창출을 위해 서부지역의 진출을 확대하고, 한중 기술 협력을 통한 기회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우리기업의 한·중 FTA 활용률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장벽 등 중국측의 FTA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본 문

I.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였고,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대외무역도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중국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 출	23,432	6.0	22,804	-2.7	1,771	-11.5
수 입	19,631	1.1	16,016	-18.4	1,096	-1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 중국 정부는 중속성장 시대를 맞는 새로운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혁신을 계획·실행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난 양회('16.3)에서 대외무역 구조개혁을 언급하며 '우진우출(優進優出, 우수한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
-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15.12)에서는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중국산의 품질 혁신을 골자로 하는 '공급측 개혁¹⁾'정책을 강조

- 이에 동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구조를 무역형태별, 가공단계별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중국 수출 특징과 함께 향후 對중국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 수입시장에서 4개국(한국, 일본, 미국, EU)의 가공단계별 수입비중을 살펴보고, 불변시장점유율(CMS : Constant Market Share) 모형을 적용하여 수출 증감요인을 비교 평가

1) 2015년 12월에 개최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6년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5대 과제를 언급하면서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중국산의 품질 혁신을 골자로 하는 '공급측 개혁'이라는 정책을 강조. 중국 정부는 향후 2~3년 안에 철강, 시멘트, 조선업, 알루미늄, 평판유리 업종의 생산량 30%를 감축할 계획

Ⅱ. 중국의 무역구조 및 특징

1. 개황

■ 중국의 무역은 2010년을 정점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중국의 무역 증가율은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2년에는 6.2%로 성장세가 한 자릿수로 둔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9.9%로 감소세로 전환됨

<중국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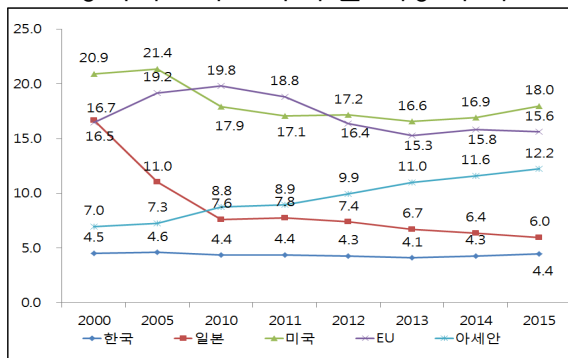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출	249,240	762,327	1,578,444	1,899,314	2,050,109	2,210,772	2,343,222	2,280,437
증감률	(27.7)	(28.4)	(31.3)	(20.3)	(7.9)	(7.8)	(6.0)	(-2.7)
수 입	225,095	660,222	1,393,909	1,741,624	1,817,344	1,941,466	1,963,105	1,601,598
증감률	(35.8)	(17.7)	(38.9)	(24.9)	(4.3)	(6.8)	(1.1)	(-18.4)
합 계	474,335	1,422,549	2,972,353	3,640,938	3,867,453	4,152,238	4,306,327	3,882,035
증감률	(31.4)	(23.2)	(34.7)	(22.5)	(6.2)	(7.4)	(3.7)	(-9.9)
수 지	24,145	102,105	184,535	157,690	232,765	269,306	380,117	678,83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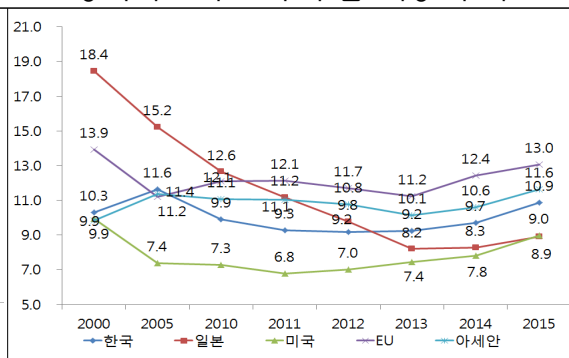
■ 중국은 신흥국 수출비중과 선진국 수입비중을 늘리는 추세

-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비중은 최근 3년간 2.3%p 증가한 반면 對일본 수입 비중은 1.4%p 감소
- 동기간 중국의 對한, 미, EU 수입 비중은 각각 1.7%p, 1.9%p, 1.3%p 증가

<중국의 對주요국 수출 비중 추이>



<중국의 對주요국 수입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 중국은 최근 10년간('05~'15)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웨이(华为), 샤오미(小米), ZTE 등 중국 휴대폰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제고되면서 휴대폰 수출 비중은 10년 사이 8.2%p 증가
 -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류 산업의 수출 비중은 2.1%p 감소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광학기기 등의 수입 비중 증가
 - 최근 10년간('05~'15)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의 수입비중은 각각 2.1%p, 2.6%p,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억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기계류	1,148	15.1	3,181	14.0
2	섬유류	1,077	14.1	2,736	12.0
3	휴대폰	94	1.2	2,134	9.4
4	철강제품	341	4.5	1,099	4.8
5	화학제품	319	4.2	1,063	4.7
6	반도체	189	2.5	1,037	4.5
7	가전제품	386	5.1	741	3.3
8	농수산물	259	3.4	669	2.9
9	플라스틱	178	2.3	658	2.9
10	자동차	166	2.2	627	2.7
11	디스플레이	114	1.5	340	1.5
12	선박	47	0.6	288	1.3
13	고무·가죽	71	0.9	210	0.9
14	석유제품	64	0.8	191	0.8
-	기타	3,170	41.6	7,831	34.3
-	총합계	7,623	100.0	22,804	100.0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억 달러, %)

순위	품목명	2005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반도체	935	14.2	2,619	16.3
2	기계류	790	12.0	1,394	8.7
3	화학제품	506	7.7	1,132	7.1
4	농수산물	218	3.3	1,036	6.5
5	자동차	123	1.9	696	4.3
6	플라스틱	333	5.0	656	4.1
7	휴대폰	33	0.5	490	3.1
8	디스플레이	306	4.6	463	2.9
9	섬유류	234	3.6	324	2.0
10	철강제품	319	4.8	283	1.8
11	고무·가죽	104	1.6	217	1.4
12	석유제품	104	1.6	143	0.9
13	가전제품	23	0.4	53	0.3
14	선박	5	0.1	10	0.1
-	기타	2,568	38.9	6,499	40.6
-	총합계	6,602	100.0	16,016	100.0

주 : 수출입 증가 품목은 음영 처리, 순위는 2015년 수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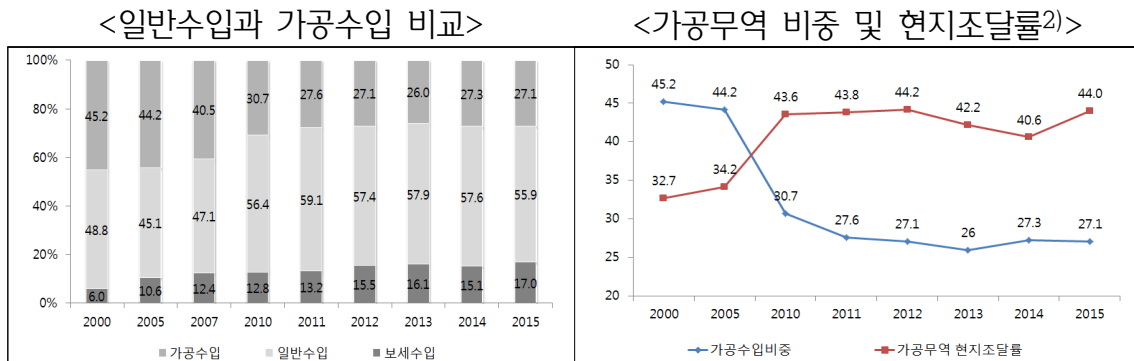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2. 중국 수입구조의 특징

(1) 무역형태별 특징

■ 가공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조달률은 증가세

- 2005~2015년 가공수입 비중은 17.1%p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현지조달률은 9.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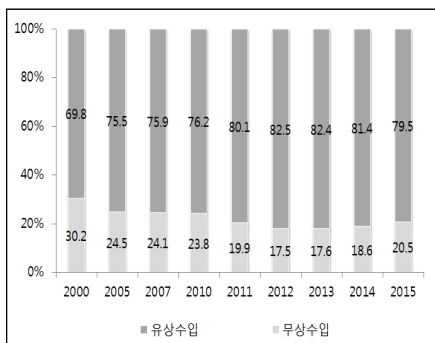
* 일반수입 + 가공수입 + 보세수입 = 전체 수입으로 가정

자료 : CEIC

■ 단순 임가공 위주의 무상수입 가공무역3)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상수입 가공무역4) 비중은 증가

- 2015년 전체 가공수입에서 유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증가세

<유상수입과 무상수입 비교>



<중국의 對주요국 가공무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가공무역 수입						일반무역 수입	
		유상수입		무상수입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07	368,378	100	279,215	100	89,163	100	428,692	100
	'15	433,209	100	346,035	100	87,174	100	866,435	100
한국	'07	56,149	15.2	38,023	13.6	18,125	20.3	30,202	7.0
	'15	86,419	19.9	67,106	19.4	19,313	22.2	59,032	6.8
일본	'07	59,355	16.1	46,161	16.5	13,194	14.8	50,454	11.8
	'15	47,709	11.0	43,891	12.7	3,818	4.4	72,182	8.3
미국	'07	18,155	4.9	14,831	5.3	3,324	3.7	36,035	8.4
	'15	23,330	5.4	16,508	4.8	6,822	7.8	84,388	9.7
EU	'07	19,339	5.2	15,417	5.5	3,921	4.4	71,218	16.6
	'15	22,200	5.1	16,914	4.9	5,286	6.1	150,698	17.4

* 유상수입 + 무상수입 = 가공수입 전체로 가정

자료 : CEIC, 중국해관총서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 2) 현지조달률은 가공무역수지/가공무역수출
- 3) 무상수입 가공무역은 중국기업이 가공임 수취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가공 후 무상으로 수출하는 형태
- 4) 외상수입 가공무역은 중국기업이 중간재를 유상으로 수입하여 최종재 또는 반제품으로 수출하는 형태

(2) 가공단계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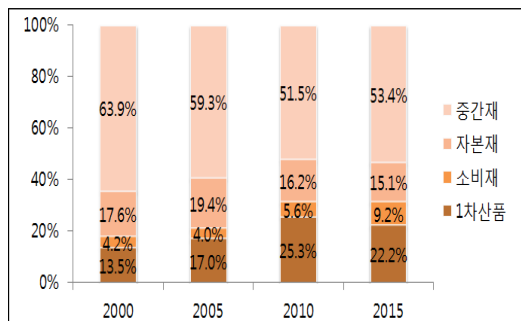
■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0년 63.9%에서 2015년 53.4%로 10.5%p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소비재 비중은 4.2%에서 9.2%로 5.0%p 증가함

-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비중은 15.8%로 가장 높았으며, 소비재 수입 시장에서 EU산 비중은 35.6%로 절대적 우위를 보임

－ 우리나라의 소비재 비중은 승용차 등의 현지 생산 확대로 2005년 6.6%에서 2015년 4.8%로 하락

*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 현지 생산량은 '06년 40만 대에서 '14년 178만 대로 증가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비중 추이> <중국의 국가별·가공단계별 수입비중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05	3,915	100	1,283	100	264	100
	'15	8,553	100	2,424	100	1,471	100
한국	'05	587	15.0	161	12.5	18	6.6
	'15	1,353	15.8	310	12.8	71	4.8
일본	'05	702	17.9	237	18.4	43	16.3
	'15	940	11.0	327	13.5	129	8.8
미국	'05	245	6.3	121	9.4	27	10.4
	'15	600	7.0	358	14.8	194	13.2
EU	'05	386	9.9	255	19.8	57	21.7
	'15	936	10.9	514	21.2	523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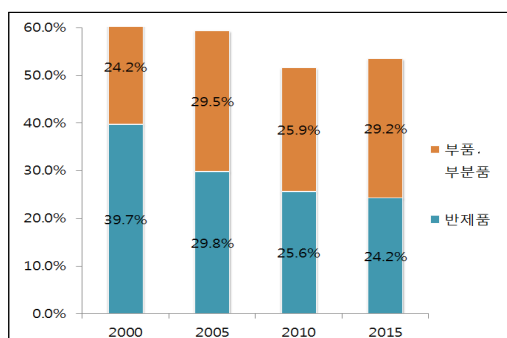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3) 중간재 수입 특징

■ 중국의 중간재 수입 중에서 부품·부분품 비중은 증가세인 반면 반제품은 감소세를 보임

- 부품·부분품 수입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015년 18.8%로 2005년 대비 4.0%p 상승하였고, 반제품 수입에서는 12.3%로 2.9%p 하락

<중국의 부품·부분품 및 반제품 수입비중> <중국의 對주요국 중간재 수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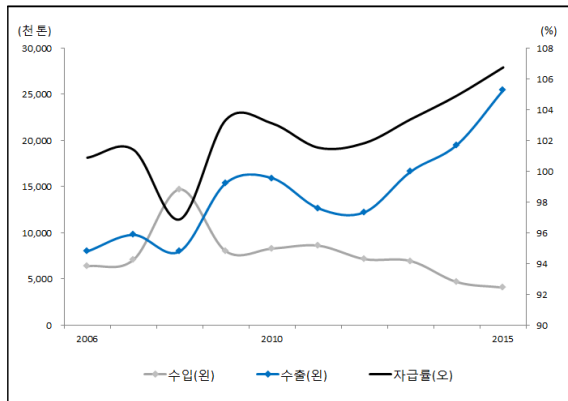
구분		중간재			
		부품·부분품		반제품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05	1,949	100	1,966	100
	'15	4,673	100	3,880	100
한국	'05	288	14.8	298	15.2
	'15	878	18.8	476	12.3
일본	'05	361	18.5	341	17.4
	'15	494	10.6	446	11.5
미국	'05	114	5.8	131	6.7
	'15	278	6.0	322	8.3
EU	'05	191	9.8	194	9.9
	'15	473	10.1	462	11.9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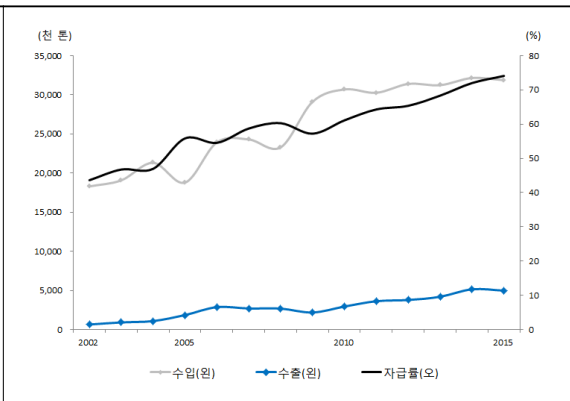
- 중국 수입시장에서 반제품의 비중저하 원인은 반제품 자급률⁵⁾ 증가에 따른 수입산 대체 가속화로 파악됨

－ 석유제품,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등 1차 산품을 가공하는 반제품의 자급률은 각각 106%, 109.7%, 107.7%로 중국내 과잉공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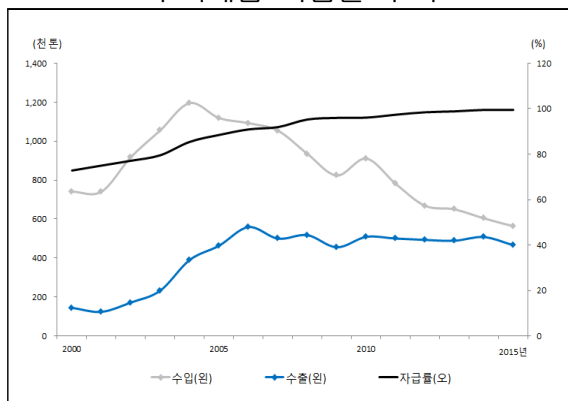
<석유제품 자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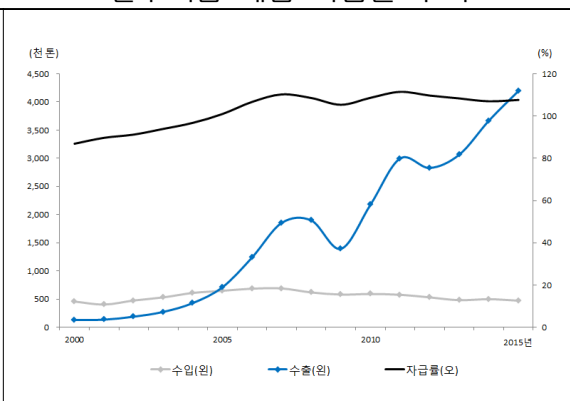
<합성수지 자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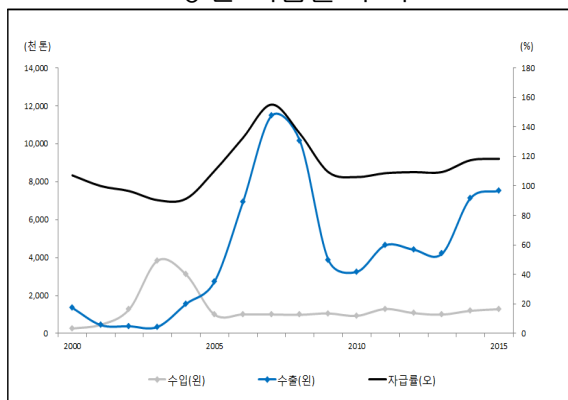
<구리제품 자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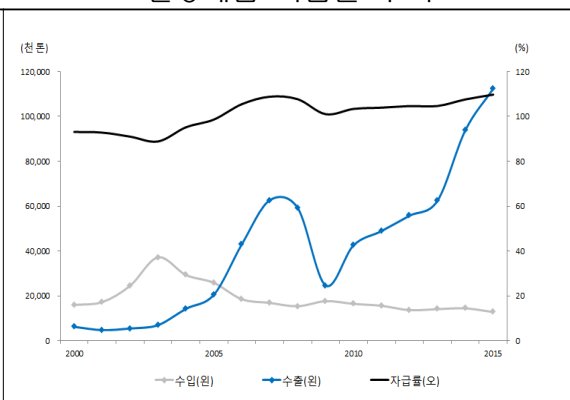
<알루미늄 제품 자급률 추이>



<종판 자급률 추이>



<철강제품 자급률 추이>



자료 : CEIC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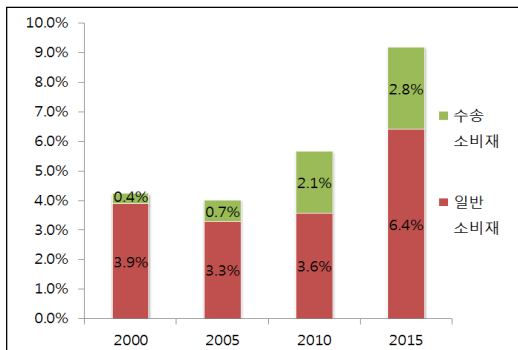
5) 산업별 자급률 = 산업별 생산량 / (산업별 생산량 + 산업별 수입량 - 산업별 수출량)

(4) 소비재 수입 특징

■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일반 소비재⁶⁾와 수송 소비재⁷⁾가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가 두 부문 모두 압도적 우위를 보임

- 중국의 일반 소비재 수입에서 우리나라 비중은 5.9%로 일본의 5.8%에 비해 앞서고 있으나, 수송 소비재는 2.5%로 일본의 15.5%에 크게 뒤짐

<중국의 일반·수송소비재 수입비중>



<중국의 對주요국 소비재 수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소비재			
		일반 소비재		수송 소비재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05	217	100	47	100
	'15	1,023	100	448	100
한국	'05	13	6.1	4	9.1
	'15	60	5.9	11	2.5
일본	'05	28	13.0	15	31.4
	'15	60	5.8	69	15.5
미국	'05	23	10.5	5	9.8
	'15	78	7.6	116	25.9
EU	'05	36	16.4	22	45.8
	'15	290	28.4	233	5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 중국 소비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재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상위 수입품도 생활용(비내구성) 소비재가 주를 이룸

- 일반 소비재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유아용 조제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주요 수입품 5위 안에 포함됨
- 수송 소비재에서는 1500~3000CC 가솔린 차량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중국의 10대 소비재 수입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05년 일반 소비재				2005년 수송 소비재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1,572	6.0	870323	가솔린차량(1500~3000CC)	2,549	9.7
2	852540	기타 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1,303	4.9	870324	가솔린차량(3000CC초과)	2,119	8.0
3	852390	기타 음성·영상기록용 매체	1,238	4.7	890399	유람, 요트, 보트 등	16	0.1
4	852439	기타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1,011	3.8	840721	아웃보드 모터	13	0.05
5	030360	냉동대구	953	3.6	880220	비행기(2,000KG이하)	12	0.05

순위	2015년 일반 소비재				2015년 수송 소비재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52580	TV카메라·디지털카메라등	9,670	6.6	870323	가솔린차량(1500~3000CC)	36,113	24.6
2	300490	기타의약품(소매용)	8,780	6.0	870324	가솔린차량(3000CC초과)	4,515	3.1
3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2,895	2.0	870333	디젤차량(2500CC초과)	1,590	1.1
4	330499	기타 미용 또는 화장품	2,722	1.9	870322	기타가솔린차량(1000~1500CC)	1,278	0.9
5	190110	유아용조제식품(소매용)	2,518	1.7	870332	기타디젤차량(1500~2500CC)	277	0.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6) 일반소비재는 내구성 소비재, 반내구성 소비재, 비내구성소비재, 가정용 식음료 등으로 구성됨

7) 수송소비재는 승객용 자동차,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로 구성됨

Ⅲ.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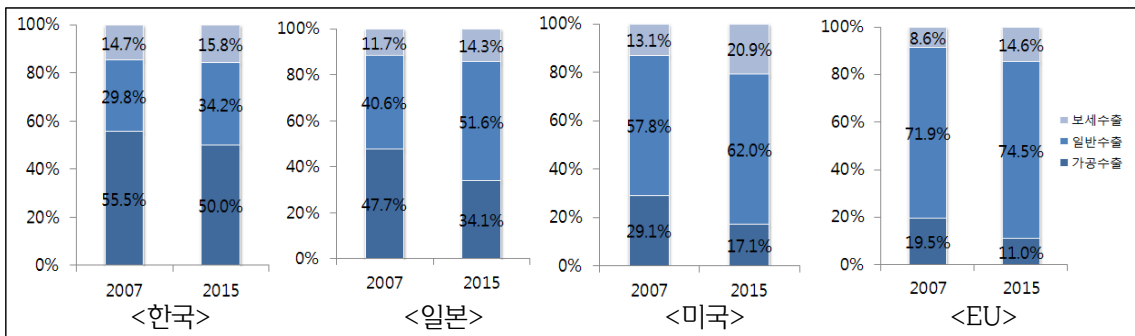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5가지 특징

① 가공수출 중심의 무역구조

■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가공수출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

- 2015년 우리나라의 가공수출 비중은 50.0%로 일본 34.1%, 미국 17.1%, EU 11.0% 보다 높음

<국가별 무역형태별 對중국 수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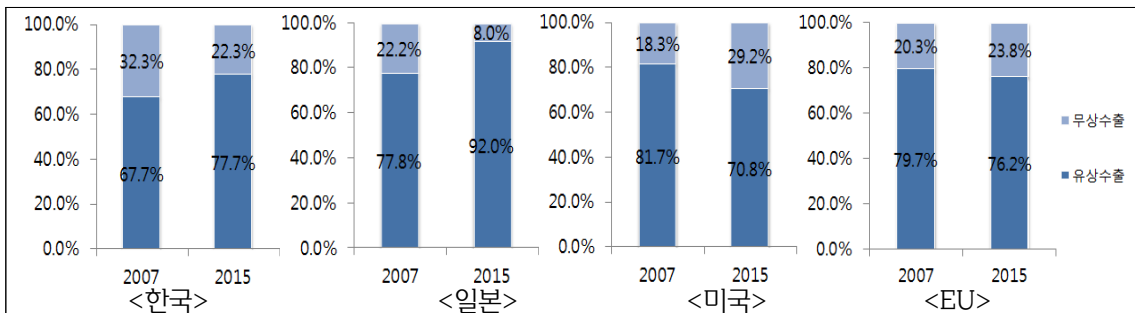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총서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② 유상수출 가공무역 비중 증가세로 단순 임가공 무역형태의 탈피 진전

■ 가공수출에서 무상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유상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한·중 가공무역 관계가 고부가가치화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별 가공무역형태별 對중국 수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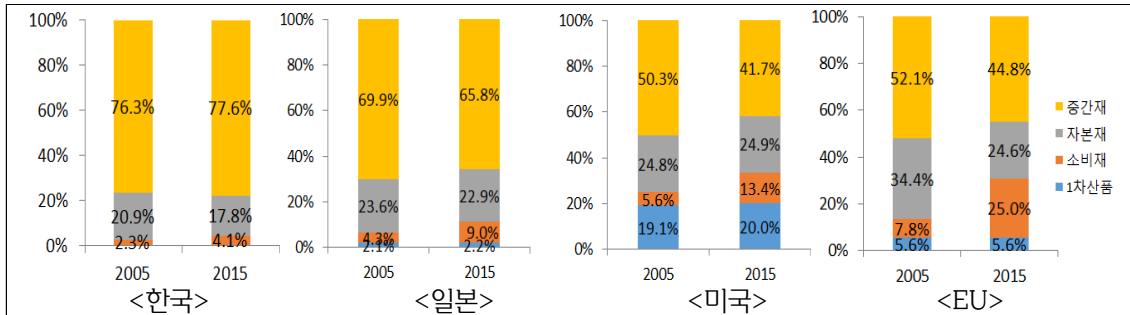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총서 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③ 중간재 수출 편중

- 2015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7.6%, 소비재 비중은 4.1%로 중간재 수출에 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가공단계별 對중국 수출 구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④ 중간재에서는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 증가 및 반제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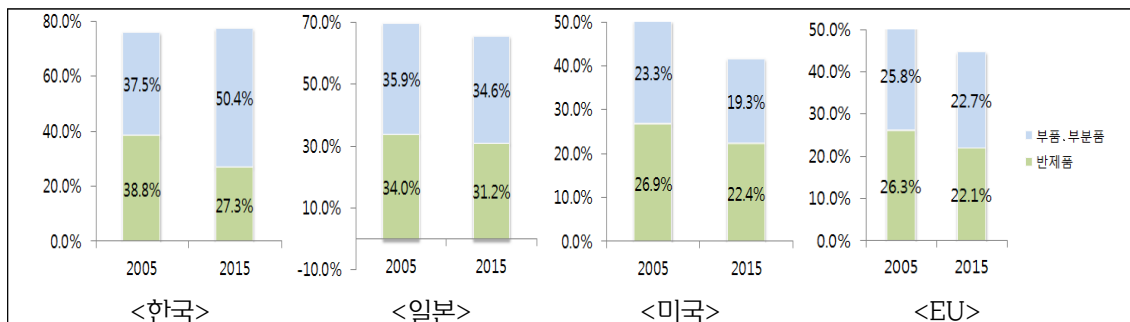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부품·부분품 수출 비중은 투자 연계성에 따라 높아지고 반제품 수출 비중은 현지대체를 증가로 감소

- 부품·부분품의 수출 비중 증가는 반도체산업의 對중국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 우리나라 제조업의 對중국 투자('15년 누적)에서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35.6%
-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은 산업별로 반제품 및 부품·부분품 조달 방식에 차이를 보임

－ 반제품의 경우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현지에서 매입하는 비중이 높고, 부품·부분품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음

- * 비금속 제조업은 중간재 91.7%를 중국 현지에서 매입
- * 전자·통신장비 산업은 중간재의 42.2%를 한국에서 수입, 현지매입(36.3%)

<국가별 부품·부분품과 반제품 對중국 수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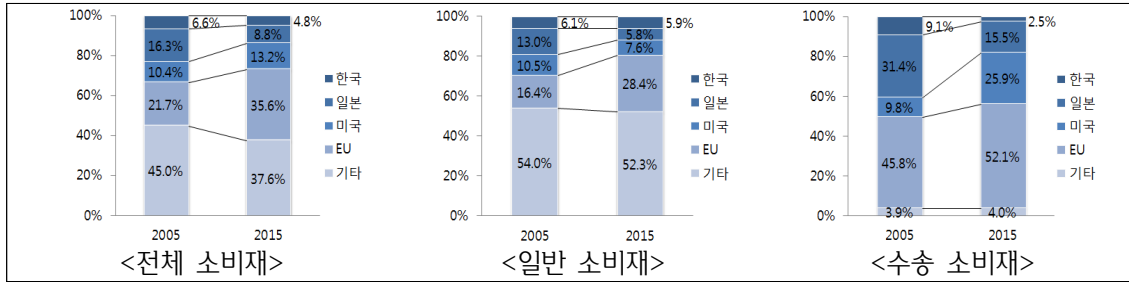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⑤ 일반 소비재 수출 확대 여지

■ 중국의 일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경쟁국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5.9%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 가능성

- 2005~2015년 사이 일본과 미국의 일반소비재는 각각 7.2%p, 2.9p 감소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의 국가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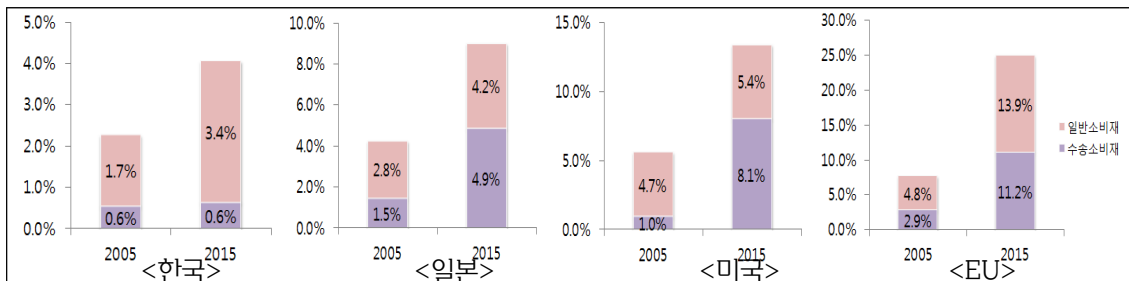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 우리나라의 일반 소비재 수출은 비내구성에 비해 내구성 제품 중심

- 우리나라는 내구성 소비재(디지털카메라, 플라스틱제품, 냉장고, 믹서기 등) 비중이 큰 반면, EU는 비내구성인 의약품의 비중이 압도적임
- 중국 소매용 의약품(HS code 3004.90) 수입에서 EU산이 73.9%를 차지하며 절대적 시장지배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산은 0.5%에 불과

<국가별 일반소비재와 수송소비재 對중국 수출 구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2015년 한·EU의 對중국 수출 10대 소비재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비내구성 품목				(반)내구성 품목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한국	1 330499	기타 미용 및 화장용 제품	667	9.4	852580	디지털카메라 등	2,098	29.5
	2 961900	위생타월 등 위생용품	167	2.3	852351	비휘발성기억장치	390	5.5
	3 350610	접착제 등 (소매용)	65	0.9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388	5.5
	4 300490	기타 의약품 (소매용)	43	0.6	841810	냉장, 냉동고	127	1.8
	5 300420	항생물질 의약품 (소매용)	40	0.6	850940	믹서기 및 착즙기 등	113	1.6
EU	1 300490	기타 의약품 (소매용)	6,487	12.4	392690	플라스틱제품	724	1.4
	2 330499	기타 미용 및 화장용 제품	1,115	2.1	852349	기록용 기타 매체	624	1.2
	3 300439	기타 호르몬 함유 의약품(소매용)	756	1.4	902190	정형외과용기기	564	1.1
	4 300432	호르몬 함유 의약품(소매용)	629	1.2	420221	가죽핸드백등	526	1.0
	5 300420	항생물질의약품(소매용)	560	1.1	711319	기타 귀금속제	391	0.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2.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경쟁력 요인 분석

■ 수출경쟁력의 변화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변동을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우리 수출경쟁력을 경쟁국과 비교 분석

-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모형을 적용하여 가공단계별 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경쟁국가와 비교

〈CMS 모형 설명〉

- 국가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분석기법으로서 분석기간 중 한국 및 경쟁국의 수출경쟁력 변화와 특징을 파악 가능

$$\begin{aligned}
 &= \sum (X_{jt1} - X_{jt0}) \\
 &= \sum (M_{jt1}\theta_{jt1} - M_{jt0}\theta_{jt0}) \\
 \text{CMS} \quad &= \sum (M_{jt1}(\theta_{jt1} - \theta_{jt0}) + \theta_{jt0}(M_{jt1} - M_{jt0})) \\
 &= \sum (M_{jt1}(\theta_{jt1} - \theta_{jt0}) + \theta_{jt0}(M_{jt1}a_{jt1} - M_{jt0}a_{jt0})) \\
 &= \sum (M_{jt1}(\theta_{jt1} - \theta_{jt0}) + \theta_{jt0}[M_{t1}(a_{jt1} - a_{jt0}) + a_{jt0}(M_{t1} - M_{t0})]) \\
 &= \sum (M_{jt1}(\theta_{jt1} - \theta_{jt0}) + \theta_{jt0}M_{t1}(a_{jt1} - a_{jt0}) + \theta_{jt0}a_{jt0}(M_{t1} - M_{t0}))
 \end{aligned}$$

①경쟁력요인 ②상품구성요인 ③수요요인

단, X_{jt0} : t0기 한국(일·미·EU)의 j품목 대중국 수출액

M_{jt0} : t0기 중국의 j품목 총수입액

θ_j : 한국(일·미·EU)의 j품목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a_j : 중국의 총수입중 j품목의 비중

〈CMS 분해식의 요인별 의미〉

- 경쟁력 요인 : 중국의 품목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품목별 수입시장점유율 변동을 경쟁력 변화로 파악하며, 비교기간중 한국의 품목별 수입시장점유율 상승(+)은 경쟁력의 향상으로, 품목별 수입시장점유율의 하락(-)은 경쟁력의 악화로 정의
- 상품구성 요인 : 중국의 품목별 수입구조의 변화를 한국이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로 측정. 중국의 품목별 수입비중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상품공급구조 요인은 +, 반대는 -
- 수요 요인 : 중국의 전체 수입규모 증감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며, 분석기간중 중국의 총수입규모가 증가하면 +, 감소하면 -

■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기(2005~2010)에 우리나라 수출은 수요요인 주도로 증가하였고, 중속성장기(2010~2015)에는 경쟁력 요인과 수요 요인이 비슷하게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경쟁력 요인과 수요 요인에 의해 對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구성 요인은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2010년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은 수요 요인에 의해 85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2010~2015년에는 경쟁력 요인과 수요 요인에 의해 각각 208억 달러, 206억 달러 수출이 증가함
 - 2005~2010년 상품구성 요인은 635억 달러 수출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2010~2015년에도 52억 달러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치며, 중국의 품목별 수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경쟁력 요인과 상품구성 요인에 의해 수출이 크게 감소함

- 2010~2015년 일본은 수요 요인에 의한 對중국 수출 증가액은 263억 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경쟁력 요인과 상품구성 요인에 의한 감소액은 각각 476억 달러, 122억 달러에 달함

■ EU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를 잘 충족함으로써 수출 증가를 이어감

- 2005~2010년 對중국 수출 감소 요인이었던 상품구성 요인은 2010~2015년 수출 증가 요인으로 전환되며 수요 요인과 함께 수출 증가에 기여

<국가별 對중국 수출 CMS 구조('05~'1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대중수출액			수출증감액(B-A)				수출증감액(C-B)			
	2005 (A)	2010 (B)	2015 (C)		경쟁력	상품구성	수요		경쟁력	상품구성	수요
한국	76,874	138,023	174,289	61,150	39,216	-63,494	85,428	36,265	20,886	-5,186	20,565
일본	100,468	176,304	142,716	75,836	13,454	-49,265	111,647	-33,588	-47,615	-12,242	26,269
미국	48,735	101,310	143,983	52,575	11,305	-12,887	54,158	42,672	29,050	-1,473	15,095
E U	73,976	168,488	208,997	94,512	27,568	-15,264	82,208	40,509	-1,650	17,055	25,1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를 이용해 자체 계산

IV.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생산·무역구조 혁신정책 드라이브로 그동안 한·중간 교역 관계에 큰 변화를 맞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동조화 정도에 있어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역행하는 모습을 보임
 - 일반무역 vs. 가공무역 : 2015년 한국의 일반무역 비중은 34.2%로 증대되는 추세이나 전체 평균 55.9%에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2015년 일본의 일반무역 비중은 51.6%이고, 미국과 EU는 각각 62.0%, 74.5%
 - 중간재 vs. 소비재 : 2015년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53.4%로 완만한 하락세 인 반면 한국의 對중국 수출 비중은 77.6%로 오히려 상승세
 - 중국의 일반소비재 수입비중은 상승세이고 한국의 수출 비중도 상승세이지만 그 비중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 2015년 국가별 중간재 수출 비중 : 한국(77.6%), 일본(65.8%), 미국(41.7%) EU(44.8%)
 - * 2015년 국가별 일반소비재 수출 비중 : 한국(3.4%), 일본(4.2%), 미국(5.4%) EU(13.9%)

<중국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수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중국의 對세계 수입구조 변화	한국의 對중국 수출구조 변화	EU의 對중국 수출구조 변화
일반무역 vs. 가공무역	일반수입 ▲('07)47.1→('15)55.9 가공수입 ▽('07)40.5→('15)27.1	일반수출 ▲('07)29.8→('15)34.2 가공수출 ▽('07)55.5→('15)50.0	일반수출 ▲('07)71.9→('15)74.5 가공수출 ▽('07)19.5→('15)11.0
무상가공 vs. 유상가공	무상수입 ▽('07)24.1→('15)20.5 유상수입 ▲('07)75.9→('15)79.5	무상수출 ▽('07)32.3→('15)22.3 유상수출 ▲('07)67.7→('15)77.7	무상수출 ▲('07)20.3→('15)23.8 유상수출 ▽('07)79.7→('15)76.2
중간재 vs. 소비재	중간재 ▽('05)59.3→('15)53.4 소비재 ▲('05)4.0→('15)9.2	중간재 ▲('05)76.3→('15)77.6 소비재 ▲('05)2.3→('15)4.1	중간재 ▽('05)52.1→('15)44.8 소비재 ▲('05)7.8→('15)25.0
부품 vs. 반제품	부품 ▽('05)29.5→('15)29.2 반제품 ▽('05)29.8→('15)24.2	부품 ▲('05)37.5→('15)50.4 반제품 ▽('05)38.8→('15)27.3	부품 ▽('05)25.8→('15)22.7 반제품 ▽('05)26.3→('15)22.1
일반소비재 vs. 수송소비재	일반소비재 ▲('05)3.3→('15)6.4 수송소비재 ▲('05)0.7→('15)2.8	일반소비재 ▲('05)1.7→('15)3.4 수송소비재 -('05)0.6→('15)0.6	일반소비재 ▲('05)4.8→('15)13.9 수송소비재 ▲('05)2.9→('15)11.2
수출증가 요인 (10~15)	-	경쟁력▲ 20,886 상품구성▽ 5,186 수입수요▲ 20,565	경쟁력▽ 1,650 상품구성▲ 17,055 수입수요▲ 25,104

자료 : 필자 자체정리

- 중국의 소비·서비스 중심의 정책전환과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i)소비재 수출 확대 (ii)중간재 수출의 기회 창출 (iii)한·중 FTA 활용이 중요

(i) 소비재 수출 확대

■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현지화 및 브랜드 전략 마련

- 중국의 소비재시장에서 유럽의 프리미엄 소비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현지화를 통한 사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최근 중국내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모조품 방지 대책도 중요

■ 소비패턴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중국 소비의 중심인 빠링허우(八零后,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가치중심 및 개인중심의 소비패턴에 맞춘 전략적인 제품 구성이 필요
 - 올해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이 폐지되고 빠링허우들이 육아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어 육아 및 생활용품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지출 확대 추세에 대응해서 노인생활과 관련한 의약품, 건강식품 및 생활용품 등의 수출 확대 노력
 - *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수(비중) 2014년 1.4억 명(10.1%) → 2020년 1.7억 명(12.1%), (UN 전망)
- 북경, 상해 등 1선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소형가전, 소형 포장식품, 애완동물용품 등의 품목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수출 확대 노력

-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새로운 기회
 - 특히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50~200위안 정도의 일상생활용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 중국인 해외직구 규모 ('14) 약 27조원 → ('18) 418조원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 * 중국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93.5% (한국무역협회, 2015)

(iii) 중간재 수출의 기회 창출

■ 중국 서부지역 진출 확대

- 중국 서부지역은 지난 10년간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기초 인프라를 갖추었고 향후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거점도시(충칭시, 쓰촨성, 산시성 등)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중간재 수출 확대 도모

■ 중국의 기술고도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중국의 ‘제조2025’⁸⁾ 계획은 차세대 인터넷, 항공우주정비, 신소재 등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중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들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중요

(iii) 한·중 FTA 활용⁹⁾

■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는 對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 분야 등에 대한 무역업계의 체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발효 2년차를 맞아 한·중 FTA 활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부는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중국측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
 -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혜품목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48시간 통관시행 현실화 및 현지 유통망 연계사업 지원 필요

8) 2015년 5월 발표된 10년 후 제조 강국(G2) 건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으로 ①혁신 능력 향상 ②품질 및 효율성 향상 ③정보화 및 산업화의 결합 ④ 녹색발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

9) 민경실·장상식 한·중 FTA발효 100일 무역업계 평가와 전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붙임1] 중국의 국가별·가공단계별 수출입 증가율

(단위 : %)

	구분	2005		2010		2013		2014		2015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수출	전체	1차산품	148	100	142	100	162	100	160	100	151	100
		소비재	2,484	100	4,545	100	6,455	100	6,972	100	6,609	100
		자본재	2,014	100	4,682	100	6,195	100	6,463	100	6,305	100
		중간재	2,959	100	6,387	100	9,257	100	9,801	100	9,726	100
		합계	7,623	100	15,784	100	22,108	100	23,432	100	22,804	100
	한국	1차산품	35	23.3	22	15.7	19	11.8	19	11.5	15	10.0
		소비재	66	2.7	97	2.1	136	2.1	162	2.3	182	2.8
		자본재	58	2.9	166	3.5	245	4.0	261	4.0	246	3.9
		중간재	192	6.5	399	6.2	503	5.4	560	5.7	568	5.8
		합계	351	4.6	688	4.4	907	4.1	1,004	4.3	1,014	4.4
	일본	1차산품	32	21.3	27	18.8	26	16.0	21	13.1	23	15.4
		소비재	342	13.8	488	10.7	584	9.0	544	7.8	490	7.4
		자본재	167	8.3	231	4.9	330	5.3	334	5.2	295	4.7
		중간재	296	10.0	454	7.1	547	5.9	595	6.1	550	5.7
		합계	841	11.0	1,203	7.6	1,487	6.7	1,495	6.4	1,359	6.0
	미국	1차산품	11	7.5	11	7.8	14	8.4	13	8.2	12	8.1
		소비재	675	27.2	1,111	24.4	1,355	21.0	1,437	20.6	1,566	23.7
		자본재	501	24.9	937	20.0	1,223	19.7	1,312	20.3	1,284	20.4
		중간재	442	14.9	773	12.1	1,071	11.6	1,199	12.2	1,237	12.7
		합계	1,629	21.4	2,832	17.9	3,663	16.6	3,961	16.9	4,100	18.0
	E U	1차산품	19	12.8	23	16.4	22	13.9	25	15.3	22	14.7
		소비재	510	20.5	1,009	22.2	1,196	18.5	1,314	18.8	1,273	19.3
		자본재	480	23.8	985	21.0	1,049	16.9	1,142	17.7	1,071	17.0
		중간재	452	15.3	1,108	17.4	1,109	12.0	1,228	12.5	1,196	12.3
		합계	1,461	19.2	3,126	19.8	3,377	15.3	3,709	15.8	3,563	15.6
수입	전체	1차산품	1,120	100	3,525	100	5,326	100	5,212	100	3,558	100
		소비재	264	100	787	100	1,368	100	1,576	100	1,471	100
		자본재	1,283	100	2,261	100	2,569	100	2,644	100	2,424	100
		중간재	3,915	100	7,180	100	9,173	100	9,361	100	8,553	100
		합계	6602	100	13939	100	19,415	100	19,631	100	16,016	100
	한국	1차산품	3	0.3	7	0.2	9	0.2	8	0.2	9	0.3
		소비재	18	6.6	40	5.0	66	4.8	70	4.5	71	4.8
		자본재	161	12.5	289	12.8	324	12.6	319	12.1	310	12.8
		중간재	587	15.0	1044	14.5	1394	15.2	1506	16.1	1353	15.8
		합계	769	11.6	1380	9.9	1,794	9.2	1,903	9.7	1,743	10.9
	일본	1차산품	21	1.9	44	1.2	51	1.0	42	0.8	32	0.9
		소비재	43	16.3	125	15.9	119	8.7	141	8.9	129	8.8
		자본재	237	18.4	427	18.9	352	13.7	372	14.1	327	13.5
		중간재	702	17.9	1,167	16.3	1,069	11.7	1,072	11.5	940	11.0
		합계	1,005	15.2	1,763	12.6	1,591	8.2	1,627	8.3	1,427	8.9
	미국	1차산품	93	8.3	251	7.1	347	6.5	347	6.6	288	8.1
		소비재	27	10.4	81	10.3	168	12.2	202	12.8	194	13.2
		자본재	121	9.4	212	9.4	318	12.4	352	13.3	358	14.8
		중간재	245	6.3	469	6.5	611	6.7	631	6.7	600	7.0
		합계	487	7.4	1013	7.3	1443	7.4	1,531	7.8	1,440	9.0
	E U	1차산품	42	3.7	132	3.8	127	2.4	126	2.4	117	3.3
		소비재	57	21.7	282	35.8	498	36.4	611	38.7	523	35.6
		자본재	255	19.8	472	20.9	549	21.4	618	23.4	514	21.2
		중간재	386	9.9	799	11.1	1,008	11.0	1,084	11.6	936	10.9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붙임2]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에 대한 국가별 구성

(단위 :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05-'10 CAGR	'10-'15 CAGR	'05-'15 CAGR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05-'10 CAGR	'10-'15 CAGR	'05-'15 CAGR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전 체	1차산품	-0.8	1.2	0.2	-1.2	-5.6	25.8	0.2	12.3	-2.1	-31.7
	소비재	12.8	7.8	10.3	8.0	-5.2	24.4	13.3	18.7	15.2	-6.7
	자본재	18.4	6.1	12.1	4.3	-2.4	12.0	1.4	6.6	2.9	-8.3
	중간재	16.6	8.8	12.6	5.9	-0.8	12.9	3.6	8.1	2.0	-8.6
	합계	15.7	7.6	11.6	6.0	-2.7	16.1	2.8	9.3	1.1	-18.4
한 국	1차산품	-8.9	-7.4	-8.1	0.0	-21.1	18.5	5.2	11.6	-11.1	12.5
	소비재	8.0	13.4	10.7	19.1	12.3	17.3	12.2	14.7	6.1	1.4
	자본재	23.4	8.2	15.5	6.5	-5.7	12.4	1.4	6.8	-1.5	-2.8
	중간재	15.8	7.3	11.5	11.3	1.4	12.2	5.3	8.7	8.0	-10.2
	합계	14.4	8.1	11.2	10.7	1.0	12.4	4.8	8.5	6.1	-8.4
일 본	1차산품	-3.3	-3.2	-3.2	-19.2	9.5	15.9	-6.2	4.3	-17.6	-23.8
	소비재	7.4	0.1	3.7	-6.8	-9.9	23.8	0.6	11.6	18.5	-8.5
	자본재	6.7	5.0	5.9	1.2	-11.7	12.5	-5.2	3.3	5.7	-12.1
	중간재	8.9	3.9	6.4	8.8	-7.6	10.7	-4.2	3.0	0.3	-12.3
	합계	7.4	2.5	4.9	0.5	-9.1	11.9	-4.1	3.6	2.3	-12.3
미 국	1차산품	0.0	1.8	0.9	-7.1	-7.7	22.0	2.8	12.0	0.0	-17.0
	소비재	10.5	7.1	8.8	6.1	9.0	24.6	19.1	21.8	20.2	-4.0
	자본재	13.3	6.5	9.9	7.3	-2.1	11.9	11.0	11.5	10.7	1.7
	중간재	11.8	9.9	10.8	12.0	3.2	13.9	5.0	9.4	3.3	-4.9
	합계	11.7	7.7	9.7	8.1	3.5	15.8	7.3	11.5	6.1	-5.9
E U	1차산품	3.9	-0.9	1.5	13.6	-12.0	25.7	-2.4	10.8	-0.8	-7.1
	소비재	14.6	4.8	9.6	9.9	-3.1	37.7	13.1	24.8	22.7	-14.4
	자본재	15.5	1.7	8.4	8.9	-6.2	13.1	1.7	7.3	12.6	-16.8
	중간재	19.6	1.5	10.2	10.7	-2.6	15.7	3.2	9.3	7.5	-13.7
	합계	16.4	2.7	9.3	9.8	-3.9	17.9	4.4	10.9	11.7	-14.3
아 세 안	1차산품	-3.8	5.2	0.6	18.2	-30.8	27.2	-4.6	10.2	-19.7	-33.6
	소비재	25.9	18.8	22.3	6.4	3.0	23.3	19.2	21.2	20.7	13.5
	자본재	25.9	10.8	18.1	7.8	4.4	12.4	-1.1	5.4	5.3	-3.6
	중간재	16.9	16.0	16.5	15.6	2.2	13.7	5.1	9.3	11.5	-9.2
	합계	20.0	15.1	17.5	11.7	2.6	15.5	3.9	9.5	5.6	-10.4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붙임3] 국가별 對중국 수출 10대 중간재·소비재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한국의 對中 수출 10대 중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54221	전자직접회로(디지털)	11,349	19.4	854232	메모리	28,421	21.0
2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부분품	4,089	7.0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1,675	16.0
3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3,084	5.3	851770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분품	8,408	6.2
4	854229	전자직접회로(기타)	2,331	4.0	854239	전자직접회로(기타)	5,148	3.8
5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2,129	3.6	290243	파라 -크실렌	4,493	3.3
6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1,723	2.9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3,031	2.2
7	721913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1,072	1.8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2,847	2.1
8	290250	스티렌	981	1.7	853400	인쇄회로	2,180	1.6
9	390330	아크릴로니트릴 등 (ABS)	871	1.5	870840	기어박스	1,605	1.2
10	390210	폴리프로필렌	864	1.5	854233	증폭기	1,545	1.1

<일본의 對中 수출 10대 중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54221	전자직접회로(디지털)	5,304	7.6	854232	메모리	5,077	5.4
2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부분품	2,833	4.0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809	4.1
3	854229	전자직접회로(기타)	2,817	4.0	870840	기어박스	3,531	3.8
4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2,614	3.7	854239	전자직접회로(기타)	3,084	3.3
5	854140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1,414	2.0	851770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분품	3,020	3.2
6	850780	기타의 축전지	1,228	1.7	853690	전기회로의 기타 접속용 기기	2,347	2.5
7	290250	스티렌	1,110	1.6	854140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	2,028	2.2
8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조제품	1,106	1.6	844399	기타 인쇄기·복사기 등 부품	1,942	2.1
9	853400	인쇄회로	937	1.3	290243	파라 -크실렌	1,866	2.0
10	900190	프린트 반경 등 기타 광학품	871	1.2	382490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	1,685	1.8

<미국의 對中 수출 10대 중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54221	전자직접회로(디지털)	3,701	15.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6,095	10.2
2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720	2.9	854239	전자직접회로(기타)	2,988	5.0
3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500	2.0	271112	프로판 (액화한 것)	1,521	2.5
4	382490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	444	1.8	300210	면역혈청 및 변성된 면역물품	1,467	2.4
5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2암모늄	440	1.8	854232	메모리	1,340	2.2
6	848180	기타의 기기	356	1.5	84119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의 부품	1,325	2.2
7	854229	전자직접회로(기타)	353	1.4	841112	터보제트	1,170	1.9
8	390210	폴리프로필렌	267	1.1	854233	증폭기	1,078	1.8
9	390740	폴리카아보네이트	263	1.1	470321	화학목재펠프	968	1.6
10	841112	터보제트	262	1.1	848180	기타의 기기	731	1.2

<EU의 對中 수출 10대 중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54221	전자직접회로(디지털)	2,198	5.7	870840	기어박스	3,561	3.8
2	851790	유선전화용 기기의 부분품	926	2.4	870829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품	2,924	3.1
3	848180	기타의 기기	702	1.8	300210	면역혈청 및 변성된 면역물품	2,228	2.4
4	853890	자동차단기 등의 부분품	653	1.7	853710	전기 제어용 기타 기반	2,171	2.3
5	870829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품	577	1.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124	2.3
6	730459	기타 합금강제의 기타 관 등	531	1.4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819	1.9
7	853710	전기 제어용 기타 기반	513	1.3	848180	기타의 기기	1,811	1.9
8	852990	무선송수신기기 부분품	507	1.3	854239	전자직접회로(기타)	1,645	1.8
9	847330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480	1.2	853890	자동차단기 등의 부분품	1,218	1.3
10	382490	기타 화학공업 생산품	469	1.2	880330	비행기 헬리콥터 기타 부분품	1,143	1.2

<한국의 對中 수출 10대 소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361	20.6	852580	TV카메라·디지털카메라 등	2,098	29.5
2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344	19.6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898	12.6
3	852390	기타 음성·영상기록용 매체	128	7.3	330499	기타 미용 및 화장용 제품	667	9.4
4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67	3.8	852351	술·담배의 비합성·정제	390	5.5
5	640699	기타재료제의 신발류부분품	64	3.6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389	5.5
6	852313	마그네틱 테이프	59	3.4	870332	디젤 차량(1500~2500CC)	169	2.4
7	170199	기타 사탕수수당 등	47	2.7	961900	위생타월, 유아용냅킨 등	167	2.3
8	841810	냉장 및 냉동고	38	2.2	841810	냉장 및 냉동고	127	1.8
9	640620	바깥바닥 및 뒷굽	35	2.0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 믹서 추출기	113	1.6
10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	33	1.9	170199	기타 사탕수수당 등	96	1.4

<일본의 對中 수출 10대 소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830	19.3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5,105	39.5
2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636	14.8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1,731	13.4
3	852540	기타 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	537	12.5	961900	위생타월, 유아용냅킨 등	1,117	8.6
4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500	11.6	852580	TV카메라·디지털카메라 등	781	6.0
5	852390	기타 음성·영상기록용 매체	345	8.0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506	3.9
6	030319	기타 냉동어류	76	1.8	330499	기타 미용 및 화장용 제품	438	3.4
7	300490	기타 의약품 (소매용)	71	1.6	300490	기타 의약품 (소매용)	348	2.7
8	621790	의류 및 부속품 등 (직물제)	63	1.5	401410	콘돔	194	1.5
9	852439	기타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61	1.4	300420	기타 항생물질 의약품(소매용)	148	1.1
10	841451	테이블창문, 천장용등의 팬	55	1.3	030729	가리비과의조개	145	1.1

<미국의 對中 수출 10대 소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255	9.3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9,778	50.5
2	852439	기타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228	8.3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935	4.8
3	852320	마그네틱 디스크	193	7.0	870333	디젤 차량(2500CC초과)	564	2.9
4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186	6.8	852349	기록용 기타 매체	534	2.8
5	020714	신선 또는 냉동 닭	169	6.1	300490	기타 의약품(소매용)	466	2.4
6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114	4.2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379	2.0
7	030332	냉동가자미	98	3.6	902190	정형외과용기기	377	1.9
8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74	2.7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310	1.6
9	640699	기타재료제의 신발류부분품	73	2.7	330499	기타 미용 및 화장용 제품	301	1.6
10	902190	정형외과용기기	70	2.6	020649	돼지의 기타 식용설육(냉동)	286	1.5

<EU의 對中 수출 10대 소비재 품목>

순위	2005				2015			
	HS	품목명	금액	비중	HS	품목명	금액	비중
1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1,099	19.2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19,049	36.4
2	870323	가솔린 차량(1500~ 3000CC)	1,056	18.4	300490	기타 의약품 (소매용)	6,486	12.4
3	300490	기타 의약품 (소매용)	578	10.1	190110	유아용 조제식품 (소매용)	1,822	3.5
4	852439	기타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264	4.6	870324	가솔린 차량 (3000CC초과)	1,774	3.4
5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169	3.0	330499	기타 미용 및 화장용 제품	1,115	2.1
6	220820	포도주 등 증류주	152	2.7	220421	기타 포도주와 포도즙	1,112	2.1
7	300420	기타 항생물질 의약품(소매용)	106	1.8	870322	가솔린 차량(1000~1500CC)	1,084	2.1
8	300439	기타 호르몬 함유 의약품(소매용)	88	1.5	870333	디젤 차량(2500CC초과)	1,021	2.0
9	220830	위스키류	88	1.5	020649	돼지의 기타 식용설육(냉동)	854	1.6
10	902190	정형외과용기기	84	1.5	020329	기타 돼지고기(냉동)	803	1.5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

[붙임4] 국가별·가공단계별 對中 수출 CMS 구조('05~'1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대중수출액			수출증감액(B-A)				수출증감액(C-B)			
	2005 (A)	2010 (B)	2015 (C)		경쟁력	상품 구성	수요		경쟁력	상품 구성	수요
한국	76,874	138,023	174,289	61,150	39,216	-63,494	85,428	36,265	20,886	-5,186	20,565
1차산품	329	738	903	409	-194	237	366	164	324	-269	110
자본재	16,075	28,903	30,954	12,828	3,197	-8,232	17,864	2,050	3,161	-5,418	4,307
중간재	58,652	104,421	135,327	45,770	37,262	-56,671	65,178	30,906	17,194	-1,846	15,559
소비재	1,752	3,960	7,105	2,208	-1,050	1,310	1,947	3,145	214	2,341	590
일본	100,468	176,304	142,716	75,836	13,454	-49,265	111,647	-33,588	-47,615	-12,242	26,269
1차산품	2,076	4,380	3,181	2,304	-1,534	1,531	2,307	-1,200	255	-2,107	653
자본재	23,665	42,650	32,666	18,985	5,199	-12,512	26,298	-9,984	-8,302	-8,037	6,355
중간재	70,203	116,741	93,952	46,538	9,822	-41,299	78,015	-22,789	-31,750	-8,433	17,394
소비재	4,295	12,532	12,915	8,237	-31	3,495	4,773	383	-7,819	6,335	1,867
미국	48,735	101,310	143,983	52,575	11,305	-12,887	54,158	42,672	29,050	-1,473	15,095
1차산품	9,329	25,100	28,753	15,771	1,679	3,725	10,367	3,653	14,282	-14,368	3,740
자본재	12,108	21,208	35,819	9,100	1,090	-5,445	13,455	14,611	5,128	6,324	3,160
중간재	24,506	46,886	60,041	22,380	7,478	-12,331	27,233	13,155	2,136	4,033	6,986
소비재	2,745	8,100	19,357	5,354	1,044	1,259	3,051	11,257	7,603	2,447	1,207
EU	73,976	168,488	208,997	94,512	27,568	-15,264	82,208	40,509	-1,650	17,055	25,104
1차산품	4,170	13,250	11,683	9,079	1,927	2,518	4,635	-1,566	88	-3,628	1,974
자본재	25,456	47,177	51,354	21,721	6,013	-12,580	28,288	4,177	-3,889	1,037	7,029
중간재	38,564	79,879	93,567	41,315	14,209	-15,749	42,855	13,688	741	1,045	11,902
소비재	5,734	28,156	52,341	22,422	5,420	10,631	6,372	24,184	1,558	18,431	4,195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중국무역통계를 BEC 코드로 분류하여 계산